

“환경인들의 단합이 더욱더 필요할 때”

안녕하십니까?

전북환경기술인협회의 16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연석입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군요. 지난해 년초에 잘해보자고 마음을 다지며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또 지난 한해를 후회하며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환경관련 재앙소식이 멀리는 아프리카, 남극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앙과 가까이는 서해안 기름유출의 인재에 의한 환경재앙 등 소식들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위기를 강조하다 보니 환경분야는 정책기반에 밀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환경인들의 단합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몸에 베인 성실성과 책임감으로 무장된 우리 환경기술인들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던지 주위를 밝히는 빛과 소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지만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진다면 국가적인 재산일 것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개선과 실천만이 있을 뿐입니다. “경제 여건이 어렵다고..., 그래서 투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여건을 탓하기보다는 현재의 조건에서 개개인의 학구적 노력과 그간의 전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기술과 이론의 응용 및 접목 등을 통해서 최대한 극복 해보려는 진지한 자세가 보여져야 합니다.

이제는 환경기술인도 최소한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는 최고의 환경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기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환경기술인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㉔



김연석
전북환경기술인협회장